



# 전포장인이 힘을 합칠 때

Union is Strength



윤영욱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장

우리 경제 현실이 앞이 어둡고 끝이 어딘지 분간이 가지 않는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도 포장산업의 부흥이라는 소명을 다하시고 계시는 포장인 모두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26일 (사)한국포장협회 총회에서 회장직을 맡게돼 우리 포장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계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회장이신 한용교 명예회장님과, 임동준, 방대엽, 김선창 우리 협회 고문님들의 성과와 업적을 지속시켜 더 나은 우리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포장업계는 국제경쟁력의 상실에 따른 수출입 무역적자, 유가 인상으로 인한 소재 가격 인상에도, 유저들의 가격 낮추기 압력 등으로 인한 적자 운영 등 업계의 생존이 걸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포장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의 터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주변 상황 특히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각국은 자본과 자원, 기술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저가 제품으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등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여파는 우리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

마무리 단계인 포장산업에는 특히 심하게 파급돼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포장인들은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구심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의지로 포장산업이 국가 발전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회생에 앞장선다는 일념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포장업계도 업체간 공정거래질서가 무너져 나라안의 출혈경쟁은 물론 수출시장에서마저 우리 업체들간 과당경쟁으로 국가 이미지가 떨어뜨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같은 위기는 포장인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자리만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창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인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노력하지 않고 무사안일에 빠진 기업이나 개인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며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그렇듯이 자본력의 취약성, 기술개발의 어려움, 고급인력 확보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여건이 시기적절하게 조성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책을 이끄는 책

임자들과 자만심에 빠졌던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포장업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가경제의 초석임을 긍지로 여겨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려 소기의 결실을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통한 수출에 주력했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국내 시장의 경쟁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어려움에서 헤어날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장산업의 안정성장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최근 경제상황으로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족당시 연포장업체 중심에서 필름, 은박, 제판, 잉크, 인쇄, 기계, 열성형, 경포장 등 108개 회원사가 9개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포장협회는 업계 공동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포장업계의 구심체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공익을 대변하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저변확대를 꾀하고 다양한 회원사 확보에도 주력하여 명실공히 우리 나라 최고의 포장산업 오피니언리더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인 협회가 제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으로 스스로 권익을 지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다면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자연히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장업계는 물론이고 포장계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업체, 사용자, 정책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장협회는 정부기관, 유관단체, 소재업체, 생산업체, 소비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포장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런 저력도 갖고 있습니다. 부도를 낸 기업, 정부의 정책, 금융기관의 모순점만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포장인들이 앞장서 새로운 경제의식을 갖고 포장산업 체질강화에 나설 때입니다.

포장인 모두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책임과 각오를 다져야 하며 비효율적인 면을 과감히 개선하는 오로지 효율경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기틀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포장인들이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하여 조금더 노력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우리국민들 모두는 무국경시대 경제에 걸맞는 새로운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공정경쟁 질서를 수용하는 자세가 함양돼야 합니다.

지역, 연고주의 등 인관관계에 바탕을 둔 전근대적 가치관을 청산하고 책임의식과 프로정신으로 재무장하여 높은 생산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직업의식이 고취되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 물리설죽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포장인들이 뭉치면 포장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포장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과 유관업체, 관련기관 포장인들의 건승과 영위하시는 일이 번창하며, 댁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